불교여성개발원, 포교원과 대립각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단독 취임 강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그동안 개발원장과 사단법인 이사장 겸직 관례를 깨고, 부설 법인 이사장 취임을 단독으로 추진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임식 및 김외숙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설립한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단체다. 이사장인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사전보고 미비 등을 사유로 이사회 연기를 통보했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11월 5일 김외숙 수석부원장을 단독후보로 상위기관인 포교원에 추천했다. 포교원이 후보 선출과정의 문제와 후보자격 문제로 개발원장 임명을 거부하자 부설 사단법인 이사장의 단독 취임을 강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취임식 직전인 11월 2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이 연기 통보한 이사회서 개발원장을 추천한데 이어 원장 임명이 거부되자 그동안 개발원장이 겸직하던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취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을 별도로 선출한 것은 포교원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 절차 문제로 임명 거부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이 연기 통보한 이사회에서 추천된 개발원장 후보는 김외숙 불교여성개발원 수석부원장이다.

노숙령 원장은 "앞서 열린 지혜로운여성 이사회에서 김외숙 여성개발원 수석부원장을 단독추천,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에서 후보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이사회서 후보 추천
포교원장 임명 거부에 반발
개발원장 겸직 관례 깨져
운영규정 정비 목소리 높아
12월 3일 공개간담회 주목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이사회는 정관상 포교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추천 권한이 없다. 포교원 측은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외숙 수석부원장의 개발원장 후보 자격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김 수석부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 3원장 퇴진을 기치로 건 8월 전국승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숙령 원장은 "뒤늦게 파악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3원장 퇴진 반대 집회 참여를 이유로 기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포교원 측은 "상식적으로라도 종단을 부정하는 집회에 참석한 자를 포교원장이 산하 포교단체의 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2배수 추천, 이사회 연기 등 요청에도 관례를 깨가면서 사단법인 이사장 취임을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외숙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이 함께 새겨진 깃발을 흔들고 있다. 그동안 양 단체는 겸직 관례와 함께 운영상 불가분의 관계로 있었다.

깨진 겸임 관례, 문제는 없나

불교여성개발원은 규정에 따라 노숙령 원장 임기만료 후 김외숙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현 사태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일정수준의 문제를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의 경우 정관상 이사 자격에 조계종 신도 등의 자격요건이 없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정관상 지혜로운여성의 지도 감독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단법인 특성상 인적 구성에 따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지혜로운여성의 경우 공익 역할을 맡아 불교색채가 옅다. 수장을 서로 겸직하는 관례는 연결고리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상위기관 정관 내 일정부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주상보〉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苦의 끝 '자비희사'

자비희사(慈悲喜捨)는 여래의 복장(腹藏)이고, 체(體)이고 모습입니다. 자비희사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아미타불의 보처 관세음보살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고 온세상을 구제하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들에게 한량없는 4무량심을 행합니다. 아픈 이에게는 약이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하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됩니다.

대자대비를 서원으로 하는 관세음보살은 대상에 따라 온갖 모습으로

평온(捨)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의 균형입니다. 아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자 즉 비 · 희 · 사이듯 자와 비와 희와 사는 서로 상보적 관계로 결합하여 성스러운 관계가 되는데 평온의 기여가 큽니다.

4무량심은 비움이고 그 비움은 여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희사에 해당하는 나누고 비우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볼륨이 커져 업장이 소멸되고 곳곳마다 행복의 꽃을 피웁니다.


비움은 여백 그림 · 조향숙

이웃과 하나되는 '4무량심'
"처처에 행복의 꽃 피우는 관세음보살로 삽시다"

응현하여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4섭법(四攝法)으로 제도합니다. 4섭법은 자비희사 4무량심의 모습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심이란 대자비심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다."

자비는 불심이고 이웃과 하나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 **자애(慈)**는 애착이나 소유욕이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즐겁게 하는 마음입니다. 인연 연기를 보면 누구에게나 자애로울 수 있습니다.

동정(悲)은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 고통에서 구해내는 연민입니다. 제비다리 고쳐주는 흥부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뻐함(喜)은 다른 이의 행복을 기뻐하고 그의 행복이 지속되기를 축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경전에서는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된다' 고 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별개가 아닌 한쌍으로 불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 이웃은 내 복밭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주었다는 생각도 복밭도 업도 과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할 뿐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양심의 도량이고 정토입니다.

4범주(四梵住)인 4무량심을 잘 닦으면 대범천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4무량심 수행으로 범천의 경지에 이르면 지금 여기에 범천의 세계가 열리므로 고(苦)의 끝, 이고득락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명자를 가지면 큰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니 위신력 때문이다. 큰 물에 표류해도 그 명호를 부르면 얕은 곳에 닿게 된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현세의 고통을 없애주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자비행을 신행하면 내안의 관세음보살에서 무량공덕이 가피로 나옵니다. 그 가피의 에너지는 시방세계를 밝히는 광명입니다. 관세음보살로 삽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대장경 전산화 매진 종림 스님 은관훈장

오는 12월 6일 수여식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연구에 매진해온 종림 스님〈사진〉이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문화재청에서 시상하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종림 스님은 1992년부터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연구 등 경전과 고문헌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한 디지털 대장경시대를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여식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덕수궁 석조전에 열린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전법단 '지역중심' 전환한다

11월 28일 전법단 대중공사서 신년계획 공개

사암聯과 연계, 활동역량 확보
도심 등 교세 취약지역 전법
신년 초 의견수렴, 봉축 출범

조계종 전법포교를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전법단이 새해 지역중심으로 전환된다. 불교세가 약한 취약지역의 전법포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계종사암연합회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포교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28일 2019년 전법단 방향 모색을 위한 대중공사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대중공사에서는 지역전법단의 신규 및 재출범 건이 논의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전법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17개 광역시도별 조계종사암연합회를 지역전법단의 기본으로 하는 신규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전법단 개편안에 따르면 2019년 부산과 대전지역 등 우선지역을 선정해 지역전법단 모델을 만들고 전국 광역시도별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지역전법단은 실질적인 활동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데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암연합회 역량을 더해 그간 하지 못한 지역포교사업 등도 전개 가능하다. 또 지역별 포교현안에 맞는 접근도 가능하다.

포교원은 신년 초 지역전법단 출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3~4월 지역전법단 출범을 위한 해당지역 조계종사암연합회, 교구본말사 현황파악을 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범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전법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6~7월과 10월~11월에도 지역전법단 출범을 위한 현황파악 후 9월 2차, 12월 3차 지역전법단 출범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계층포교 지원을 위해 구성한 계층전법단의 경우 기존 포교신행단체와 활동이 겹치는 분야는 일정부분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교원 측은 "도심포교의 중요성과 교세 취약지역에 대한 전법 확대 필요성에서 지역전법단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사암연합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실제로 많은 사찰과 신도들이 전법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전법포교의 기운이 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